

“청년이 살고 싶은 전북 만들어 가자”

도·도내 14개 대학 총학생회장단, 지역·대학 소통 간담회 개최
김관영 도지사, “학생들이 지역의 성장동력 되도록 노력” 당부
총학생회장단, 대학생들 실질 혜택 받는 구체적 정책 마련 요청

청년이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도지사와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자리를 함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도내 14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022년 도지사

취임 이후 청년들과 적극적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해 대학 총학생회와도 학교별로 여러 차례 만나 왔으나 도내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함께 한 자리엔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전북도정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해답이 교육혁신에 있다고 보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과 긴밀히 소통·협력

하고 있다”며, “그 결과 RIS, RISE 시범지역, 전북대와 원광대의 글로벌대학 선정, 교육발전 1~2차 선정 등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회발전 특구

선정으로 각종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역량을 학생들이 갖추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전북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및 지역대학, 지역 대학생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총학생회장단은 김 지사에게 “대학 교육의 질 향상, 취업지원, 주거 문제 해결 등 청년 정책 지원과 함께 RISE 전환이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향후에도 총학생회장단 만남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대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시책 개발을 통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23일 전북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도내 14개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법원 공탁금 압류로 26억원 체납 징수

대법원 협조로 체납자 공탁금 전소조사... 숨겨진 재산 추적 본격화

전북자치도가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강력한 한 수를 썼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세 체납자 98명과 법인 92개를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총 26억 7,000만원을 확보, 이중 11명의 체납자와 법인 11개에서 7,300만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도는 대법원의 협조

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자료를 전소 조사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9,956명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공탁금 압류 조회 및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으로 변제공탁, 집행공탁, 보증 공탁 등 3가지 공탁금 유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

해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공탁금 압류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체납자의 공탁금 지급 청구권을 압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또한, 보증 공탁의 경우, 공탁자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해 추후 추심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압

류된 공탁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지방세 수입을 확보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압류 조치를 시작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예를, 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 등의 고강도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특히 상습·고질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2024년 화랑훈련’ 본격 돌입

도내 전역 통합방위태세 확립... 27일까지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는 23일 오전 도청 총무실에서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화랑훈련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김

성준 전북지방병무청장, 신경순 전북동부보훈지청장, 군부대 및 경찰, 소방 등 전북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약 23명 참석했다. 김관영 35사단장은 군 작전지휘를 위해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경 작전 상

황 보고, △통합 방위 ‘올중’ 사태 선포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도내 전 지역에서 화랑훈련이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대량 전상자 발생에 따른 피해복구 실제 훈련 및 상황조치 토의’를 실시하는 등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대내외 안보 상황이 불안해지고 있어 상시적인 비상 대비 태세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 나가야 할 때”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민·관·군·경·소방의 통합 방위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전북자치도를 만드는데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 2024년 노인일자리 평가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장관상

2024년 사업비 3470억원 지원·7만8841명 일자리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5년 연속 노인일자리 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다시 한번 노인복지의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서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 광역 시·도부문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전북자치도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 성과와 사업관리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5년 연속 최우수기관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 황용해 100세 시대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고, 2023년에는 2,511억원의 사업비로 6만8,901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2024년에는 사업비 3,470억원으로 7만8,841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본부, 전북노인일자리센터와 협력하여 실무자 교육, 안견교육, 평가 대응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석면 전북자치도 고령친화정책과장은 “이번 성과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북형 일자리 정책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맹견 기질평가 첫 시행

도내 맹견 158마리 대상...내달 26일까지 사육 허가 받아야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전주 덕진구에 위치한 평가장에서 첫 번째 맹견 기질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 27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른 조치로, 도사견, 핏볼테리어 등 맹견 5종과 그 잡종을 대상으로 한다.

라 안전시설 설치 명령 등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

도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맹견은 총 158마리로, 기존 소유자들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한 이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맹견을 기르고자 하는 소유자가 동물등록, 중성화수술, 책임보험 가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질 평가를 통해 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는 제도다.

이번 기질 평가는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등 12개 항목에서 맹견의 행동 및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격성과 소유자와의 상호 작용 등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

는 도 동물방역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만호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ail.com